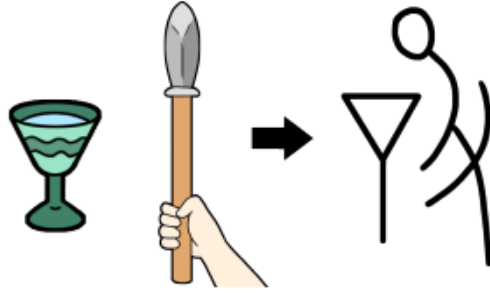


4(2)
-
101

회의문자①



設

베풀 설

設자는 '베풀다'나 '진열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設자는 言(말씀 언)자와 設(몽둥이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 나온 設자를 보면 술잔 앞에 무기를 들고 있는 設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設자는 본래 전쟁이나 사냥에서 획득한 물건을 늘어놓고 잔치를 벌인다는 뜻으로 만든 글자였다. 設자에 '진열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도 본래는 잔치를 벌이기 위해 획득한 것들을 늘어놓았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후에 술잔 대신 言(말씀)자가 쓰이게 되면서 '진열하다'라는 뜻 외에도 '(말을)베풀다'라는 뜻이 더해지게 되었다.

設

갑골문

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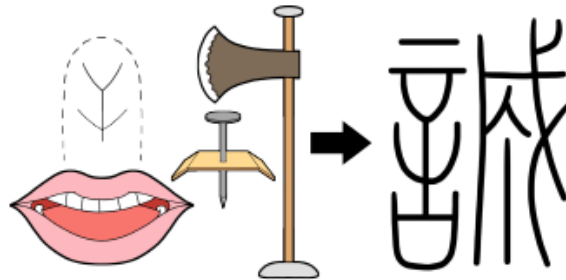
소전

設

해서

4(2)
-
102

회의문자①



誠

정성 성

誠자는 '정성'이나 '진실'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誠자는 言(말씀 언)자와 成(이룰 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成자는 창을 뜻하는 成(창 모)자와 丁(못 정)자가 결합한 것으로 '이루다'나 '갖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갖추다'라는 뜻을 가진 成자에 言(말)자를 결합한 誠자는 '말을 갖추다' 즉, '말을 참되게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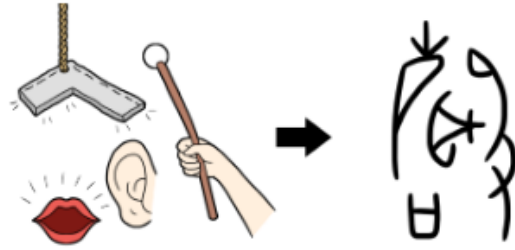
소전

誠

해서

4(2)
-
103

회의문자①



聲

소리 성

聲자는 '소리'나 '노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聲자는 声(소리 성)자와 聑(몽둥이 수)자, 耳(귀 이)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여기서 声자는 '석경(石磬)'을 그린 것이다. 석경이란 고대 아악기의 일종으로 돌로 만든 경쇠를 말한다. 두들겼을 때 맑은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전에는 악기의 일종으로 사용했었다. 이렇게 석경을 그린 声자에 몽둥이를 든 모습의 聑자가 결합한 것은 석경을 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기에 귀를 더한 聲자는 악기 소리를 듣는 모습으로 '소리'나 '노래'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참고로 갑골문에서는 口(입 구)자까지 있었지만, 후에 생략되었다.

聲

갑골문

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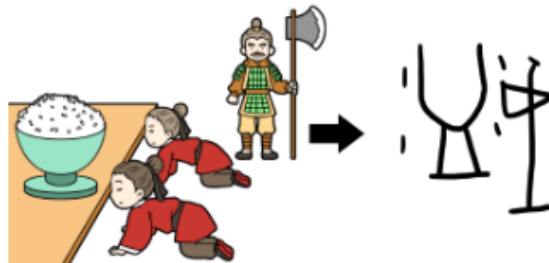
소전

聲

해서

4(2)
-
104

회의문자①



盛

성할 성:

盛자는 '담다'나 '성하다', '성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盛자는 皿(그릇 명)자와 成(이룰 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成자는 고대에 사용하던 창을 그린 것으로 '이루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盛자의 갑골문을 보면 皿자 주위로 여러 개의 점이 찍혀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넘치다'라는 뜻의 𠂔(더할 익)자이다. 그 옆에는 成자가 있는데, 이는 고대에 치러지던 제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전쟁에 나가기 전 신에게 제사를 지내 승리를 기원했었다. 盛자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제기의식이 성대하게 치러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성하다'나 '성대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盛

갑골문

盛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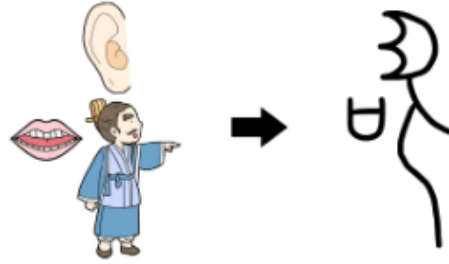
盛

소전

盛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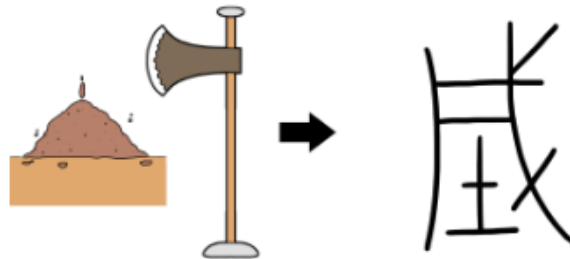
聖

성인 성:

聖자는 '성인'이나 '임금',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聖자는 耳(귀 이)자와 口(입 구)자, 亼(천간 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聖자는 본래 '충명한 사람'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聖자의 갑골문을 보면 큰 귀를 가진 사람 옆에 口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누군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聖자는 타인의 말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나 '충명한 사람'을 뜻했었다. 하지만 후에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성인'이나 '거룩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城

재 성

城자는 '성'이나 '도읍', '나라'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城자는 土(흙 토)자와 成(이를 성)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성(城)은 적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높은 장벽을 말한다. 고대의 도시들은 대부분이 흙을 쌓아 만든 장벽에 둘러싸여 있었다. 城자에 쓰인 土자는 그러한 뜻을 전달한다. 그러니 城자는 성벽을 쌓고 창을 들어 지킨다는 뜻이다.

금문	소전	해서

4(2)
-
107

회의문자①



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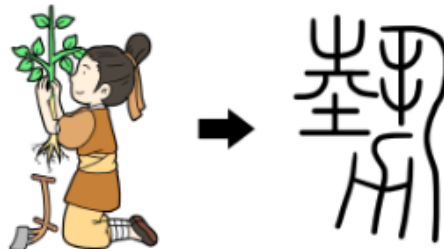
별 성

星자는 '별'이나 '천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星자는 日(해 일)자와 生(날 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生자는 풀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星자의 갑골문을 보면 生자 양옆으로 口(입 구)자가 𠄎 그려져 있었다. 여기서 口자는 밤하늘의 별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口자가 아닌 日자가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𠄎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하나의 日자만 쓰이게 되면서 지금의 星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108

회의문자①



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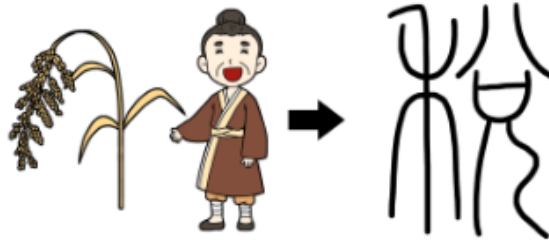
형세 세:

勢자는 '형세'나 '권세', '기세'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勢자는 執(심을 예)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執자는 묘목을 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심다'나 '재주'라는 뜻이 있다. 이렇게 묘목을 심는 모습을 그린 執자에 力자를 결합한 勢자는 나무가 힘차게 자란다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묘목은 작고 연약하지만 언젠가는 크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勢자는 점차 큰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에서 '형세'나 '기세'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4(2)
-
109

회의문자①



稅

稅자는 '세금'이나 '거두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稅자는 禾(벼 화)자와 兌(기쁠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兌자는 환하게 웃는 사람을 그린 것으로 '기쁘다'라는 뜻이 있다. 稅자는 租(세금 조)자와 마찬가지로 논밭에 대한 세금을 뜻하는 글자이다. 기쁜 마음으로 세금을 내라는 뜻이었을까? 稅자는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려져 '세금'을 뜻하게 된 글자이다.

세금 세:

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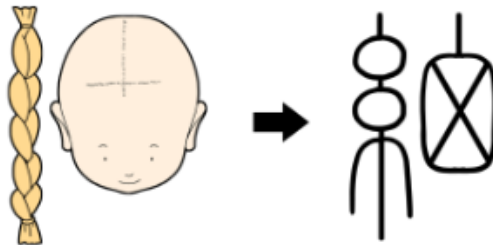
소전

稅

해서

4(2)
-
110

회의문자①



細

細자는 '가늘다'나 '작다', '드물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細자는 系(가는 실 사)자와 田(밭 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細자의 소전을 보면 田자가 아닌 囟(정수리 신)자가 쓰여 있었다. 囟자는 아이의 정수리에 있는 혈 구멍을 표현한 것이다. 옛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머리에는 미세한 기가 흘러나온다고 믿었다. 囟자가 쓰인 腦(뇌 뇌)자가 만들어진 형태만 봐도 그러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미세한 기의 흐름을 연상케 하는 囟자에 系자가 결합한 細자는 본래 '가는 실'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지금은 '작다'나 '드물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가늘 세:

細

소전

細

해서